

전통한옥호텔 '라궁'

Millenium Palace Resort & Spa

■설계자 **조정구** / 정회원, (주)구가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by Cho, Jung-goo, KIRA



약력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 동경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주요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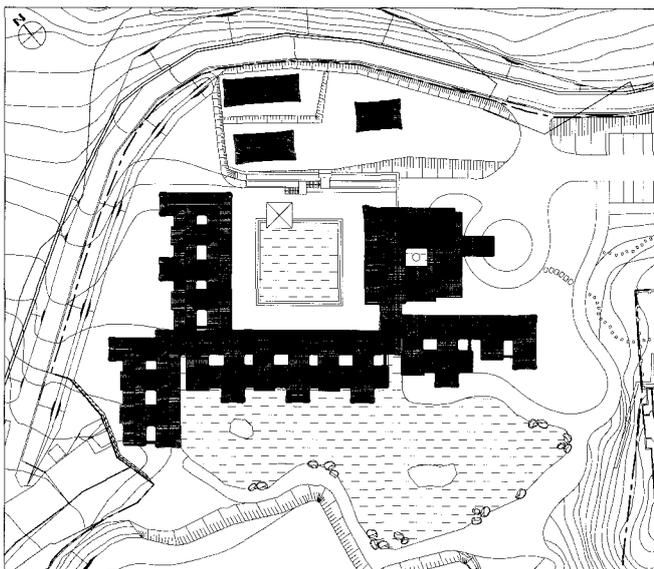
삼청동k 갤러리, 인제 미명재, 동선동 권진규 아틀리에, 가회동 선음재, 인사동 누리레스토랑, 가회동 진원당, 원서동 궁중음식연구원, 대치동k 주택 외

■사공사 **삼부토건(주)**

■건축주 **(주)신리밀레니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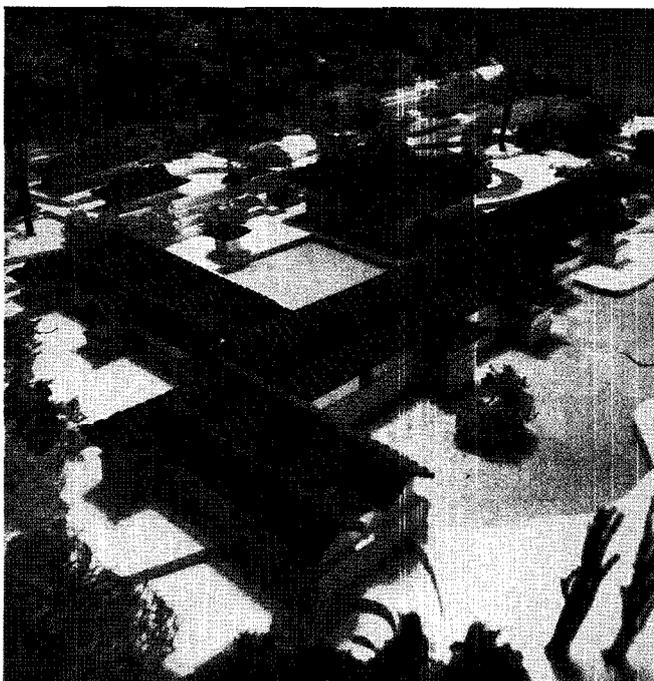
● 배치도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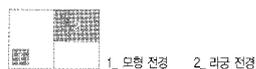
0 5 10 20m

| | |
|-------|-------------------------------|
| 대지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2-1번지 외 207필지 |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
| 주요용도 | 숙박시설 |
| 대지면적 | 19,344.79㎡ |
| 건축면적 | 1,529.81㎡ |
| 연면적 | 1,842.27㎡ |
| 건폐율 | 7.91% |
| 용적률 | 9.52% |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한식목구조 |
| 내부마감 | 한식회벽마감, 한식벽지 |
| 외부마감 | 한식회벽마감, ALC 전용 플라스터, 한식기와(지붕) |
| 구조설계 | 윤구조기술사사무소 |
| 설비설계 | (주)기한 엔지니어링 기술사사무소 |
| 전기설계 | (주)지성설계 컨설턴트 |
| 토목설계 | 광진엔지니어링 |
| 설계담당 | 민도식, 조지영, 차종호, 최경자, 구분환 |
| 사진 | 박영채 |



Location 2-1, Sinpyeong-dong, Gyeongju-si, Gyeongbuk-do, Korea

| | |
|---------------------|------------|
| Site area | 19,344.79㎡ |
| Bldg area | 1,529.81㎡ |
| Gross floor area | 1,842.27㎡ |
| Bldg coverage ratio | 7.91% |
| Gross floor ratio | 9.52% |
| Structure | R,C, Wood |
| Bldg. Scale | B1, F2 |





서울 도시한옥의 실측과 설계로 시작했던 한옥작업은 이제 다양한 규모와 주제 그리고 현대적 기능을 담아내는 '새로운 한옥 설계'로 이어지고 있다. 구조와 지붕은 한옥을 유지하면서, 전통을 변주한 모던한 입면 구성을 하거나 한옥에 붙여 다른 구법의 공간과 공존을 시도하고, 한옥 본채에서 목구조를 연장하여 마당을 덮는 아트리움을 만드는 작업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한편, 앞의 예들이 주어진 기존 한옥의 바탕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풀어내는 것이었다면, '羅宮'은 호텔이라는 현대적 기능을 전적으로 새로운 땅에서 적합한 대안을 찾아내어 전통 한옥의 조형과 공간으로 만들어낸 사례라 할 수 있다. 준공한 라궁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연면적 557평, 동서로 98m, 남북 38m이며, 모두 16개의 객실과 식당과 라운지가 있는 관리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객실은 모두 독립적인 마당과 전망을 갖추고 있으며, 회랑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몸체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전면으로 인공연못을 두고 후면에는 중정과 화계를 두었다.

도시한옥의 집합개념을 적용한 집중형 배치

작업을 하기 전 검토된 안에는 일본의 여관과 대중욕탕 개념을 우리 양식의 전각과 회랑으로 구성해 낸 안이 있었으며, 초기부터 기획에 관여했던 이연건축의 조전환 대표가 작성한 배치 스케치 등이 있었다. 작업 초기에 한옥 숙박채를 분산배치하는 '분산형 배치'를 검

토하였으나, 소요 관리인원과 이동동선, 운영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다. 다음으로 연구된 '집중형 배치'는 한옥 숙박 unit을 '도시한옥과 같이 집합하여 이어서 배치' 함으로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회랑'을 연결공간으로 제안함으로써, 공간과 조형의 격식을 높이고, 일반한옥 공간에서는 얻기 어려운 '고유한 체험'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마당과 노천온천의 결합

한옥 마당이 지나는 은밀한 공간적 성격을 적극 활용하여, 노천온천을 마당에 설치함으로써, 완벽하게 보장된 프라이빗 공간에서, 자연과 개방되어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둘러싸인 프라이빗한 마당은 도시한옥 설계작업에서 얻어낸 영감이기도 하다. 마당과 노천온천의 결합, 또는 누마루와 노천 온천의 결합 등은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다.

자연으로의 개방

각 숙박unit은 프라이빗한 마당과 함께 밖으로 열린 풍경을 지니도록 계획되었다. 주어진 기존 지형을 활용하여, 인공연못(가로 90m 세로 45m)을 중심에 놓고 주변 지형으로 둘러싸아, '개방적이면서도 외부 장애물이 보이지 않는 독립적인 경관'을 객실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한 편, 숙박 unit중 '누마루형'은 뚫출되어, 자연

으로의 개방감을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새로운 전통적 격식공간의 창출

라궁의 공적인 영역의 계획, 즉 라킵션과 라운지, 식당을 담고 있는 관리동과, 숙박unit을 연결하는 '회랑' 등의 공간과 조형은, 우리의 전통적 조형을 현대적으로 승화하여 계획하는 것으로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전통적 격식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특히 관리동은 경사지에 조성된 2층 규모의 요사채 등을 참고하였다.

현대적 실내환경과 전통적 구법의 결합

모든 공간은 냉방과 난방, 전기와 통신, 관리 등 호텔이 갖추어야 하는 기능적인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현

대적 실내환경은 전통적 구법으로 이루어진 공간아래에서, 눈에 띄지 않게, 전통적 요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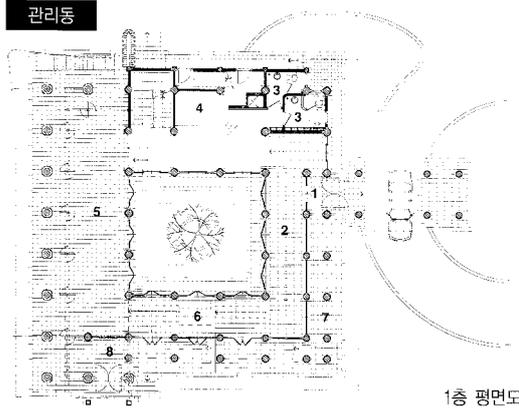
전통건축 요소의 다양한 결합

라궁의 계획에서 전통건축의 각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해체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결합하는 '계획적 유연성'을 발휘하였다. 입구에서 진입하는 관리동은 '2층 규모의 요사채'와 높은 회랑을 결합하고 있으며, 숙박동은 궁중 혹은 사찰의 회랑과 도시한옥의 유형을 연립하여 결합하고 있다. 또한 객실 내부에는 도시한옥에서는 보기 어려운 누마루를 두어 조경 및 수경공간을 조망하도록 하였다. 가급적 현대 건축요소를 내연화하고, 전체를 전통 목구조에 기반하여 구축하고자 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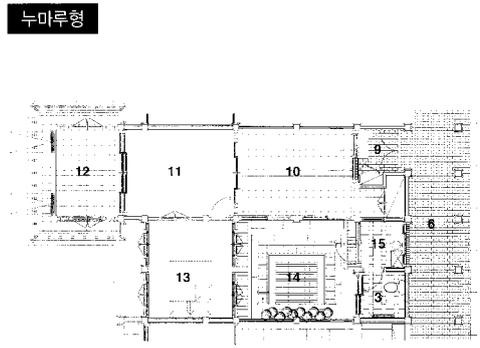


- 1. 마당 전경
- 2. 회랑 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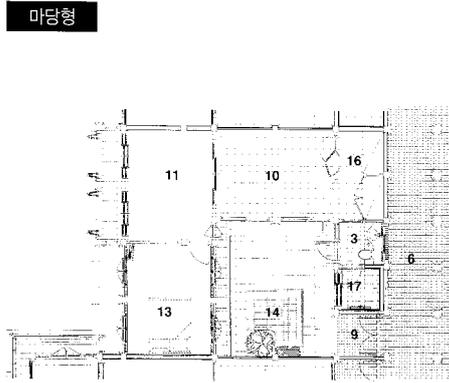
- 01_ 주출입구
- 02_ 홀
- 03_ 화장실
- 04_ 리셉션
- 05_ 라운지
- 06_ 회랑
- 07_ 기단
- 08_ 부출입구
- 09_ 현관
- 10_ 대청
- 11_ 거실
- 12_ 누마루
- 13_ 침실
- 14_ 옥외온천
- 15_ 세면실
- 16_ 미니바
- 17_ 샤워실
- 18_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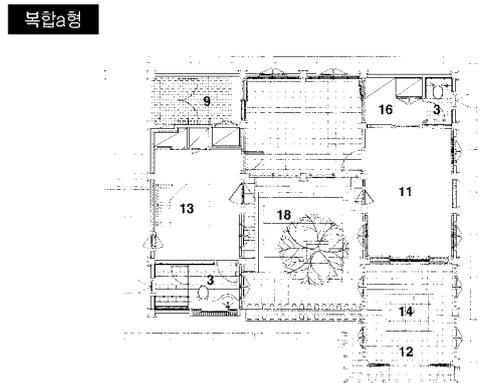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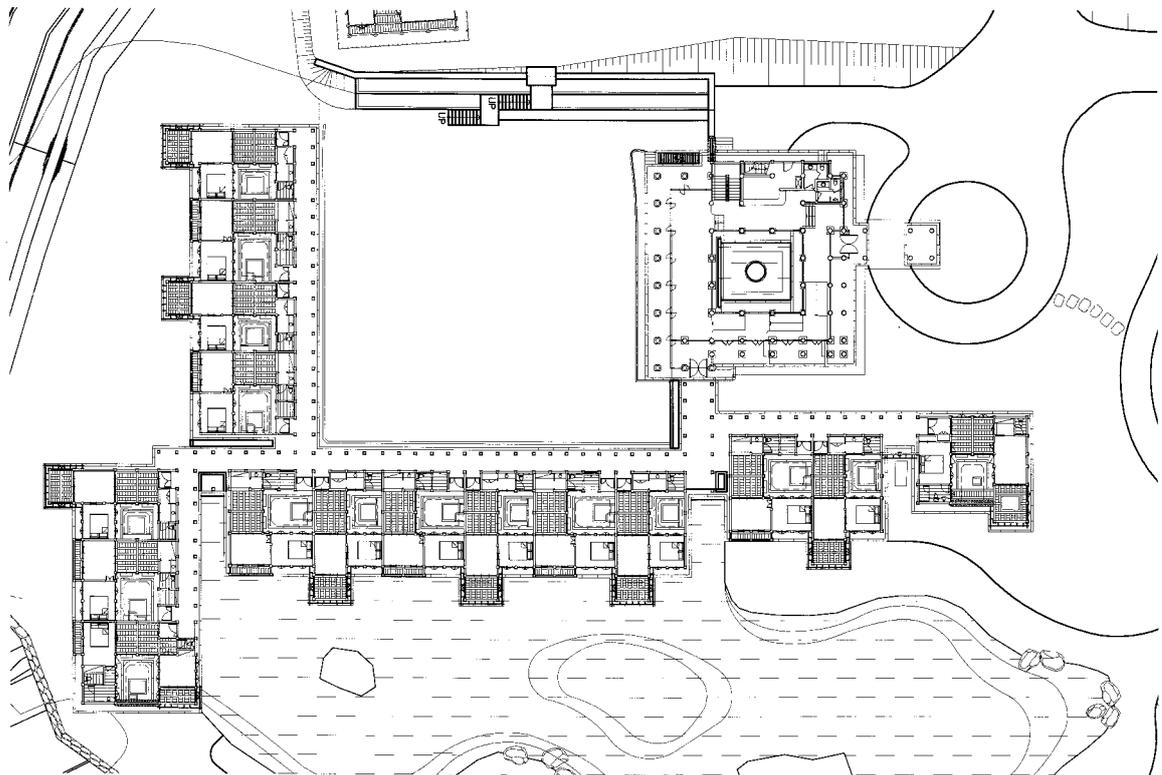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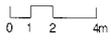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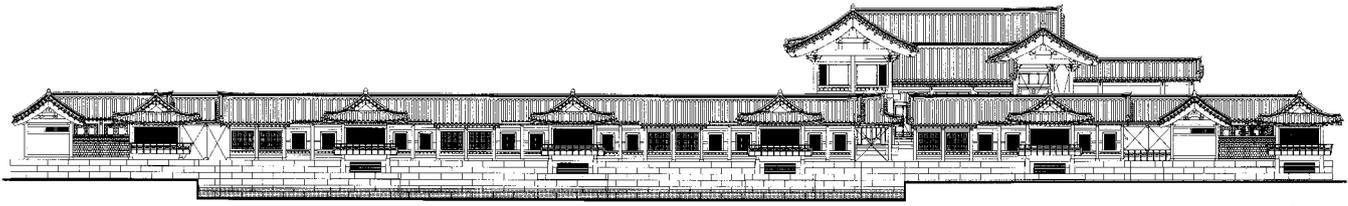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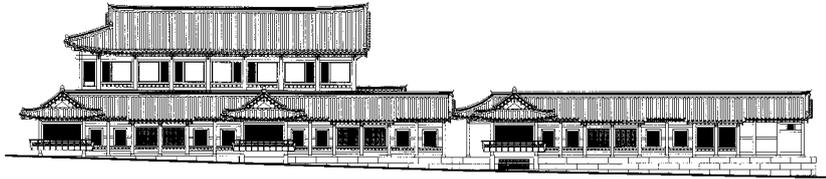
평면도



전체평면도



전체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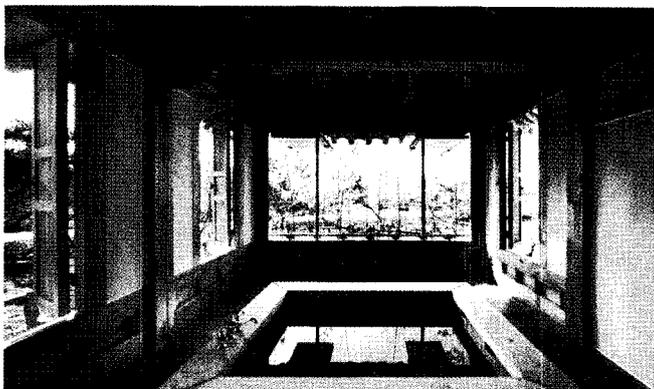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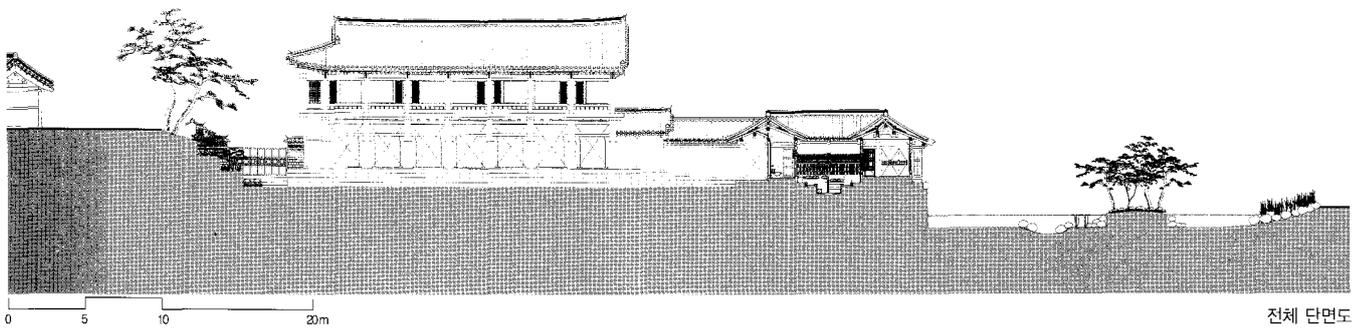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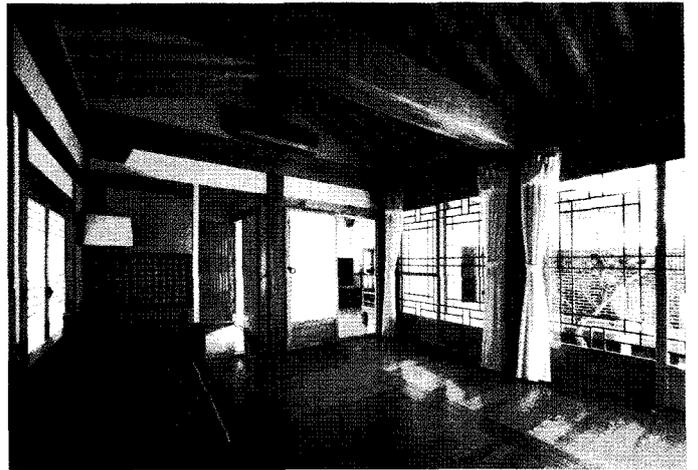
전체 서측입면도

0 5 10 20m



- 1. 숙박동 마감형 전경
- 2. 숙박동 실내온천 전경
- 3. 숙박동 마감형 전경
- 4. 숙박동 누마루
- 5. 관리동 중정
- 6. 숙박동 전경





전체 단면도